상 담 학 연 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1, Vol. 12, No. 4, 1211-1230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개발과 타당화*

하 정 희†
한양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Hewitt 등이 개발한 척도의 개념을 근거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한국문화에 적합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속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PSPS-K의 예비문항을 개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으로 구성된 3요인 모델이 확인되었으며, 이 모델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지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완벽주의 척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요인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요인에서는 대학생 집단보다 성인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차원은 우울감, 자기검색, 자기구실만들기와 각각 다르게 관련됨을 보여줌으로서, Hewitt 등(2003)이 제시한 바와 같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차원 별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유용성과 연구의 제한점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 요인분석, 다차원적 완벽주의

* 본 연구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인문연구분야 신진교수지원)에 의한 연구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하정희 /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Tel: 02-2290-0364 / E-mail: hajung366@hanmail.net

www.kci.go.kr

완벽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이래, Hewitt 등(2003)은 기존의 특성적인 완벽주의로는 완벽주의의 전체적인 모습을 모두 이해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Hewitt et al., 2003) 이러한 욕구가 큰 사람을 일컬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을 지녔다고 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큰 사람들은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촉진하고 불완전하게 지각된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은폐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완벽해지려는 욕구를 넘어서며,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려는 개인의 행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성적 완벽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완벽주의 성격의 측면 가운데 특성적 완벽주의가 완벽주의와 관련된 개인의 성격과 태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성격의 또 다른 측면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자신들이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같은 표현적 욕구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극단적이며 타인에게 자기를 기만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세 가지 하위 요인들을 포함한다(Hewitt, Blasberg, Flett, Sherry, Medjuck, Caelian., 2007; Hewitt et al, 2003). 먼저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완벽함을 공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이들은 타인에게 존경과 칭찬 즉, 호의적인 평판만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이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으며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측면은 은폐하려고 한다. 두 번째 요인으로 '불완전함 은폐-행동적(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불완전함을 은폐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중에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고 노력함으로서 자신의 결함이 드러나거나 실수할만한 행동들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된다. 이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번복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에게 완벽한 인상을 제시할 수 있다는 효능감 또한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요인인 '불완전함 은폐-언어적(NDC)'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말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부정적이거나 불완전해 보이는 자신의 측면들을 숨기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려는 경향성은 사회적 평가에 대해 염려하는 완벽주의자들이 더욱 더 불안해지기 쉽다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Flett, Hewitt, Endler, & Tassone, 1994), 이들은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Frost et al., 1995). 따라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그들이 지각한 결점을 인정해야하거나 의논해야 할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특성은 다양한 개인내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대인간 문제들과도 관련되어져왔다(Hewitt et al, 2003; 2007). 먼저, 개인내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요인들은 불안, 자아존중감, 우울, 섭식장애, 성격장애, 제한된 정서 등과 각각 다르게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 Hewitt et al, 2003; 2007; Hewitt, Habke, Lee-Baggley, Sherry, & Flett, 2008; Humphrey, 1992), 특성적 완벽주의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 불안과 우울,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 등을 설명해주었다(Hewitt et al, 2003).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대인간 문제들의 몇몇을 살펴보면, 완벽주의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치료에 대해 부정적

www.kci.go.kr

인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Ey, Henning, & Shaw, 2000; Hewitt et al, 2003; Hewitt et al, 2007; Hewitt & Flett, 2002). 또한 이들은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할까 두려워하여 자신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등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Leary et al., 1995).

살펴본 바와 같이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는 완벽주의의 대인간 표현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기존의 특성적 완벽주의만으로는 이들 문제들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파악하여 이들의 특성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김수진(2008), 하정희(2010a)가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Hewitt 등의 27문항의 원척도를 동일하게 번안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요인 수나 요인의 항목에 있어서 원척도와도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둘 간의 연구 결과에서도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김수진(2008)의 타당화 연구에서 볼 때,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차원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차원에서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한 문항이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제외되었고, 자신의 결함이나 실패에 대해 타인이 보거나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문항 역시 제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하정희(2010a)의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하정희의 연구에서는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차원에서 원척도와 비교할 때 문항수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차원의 신뢰도도 낮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차원의 문항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혹은 번안 상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문항들과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차원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서로 요인이 겹치거나 혹은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문항이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문항으로 묶이는 등 주로 '불완전함 은폐'에 대한 요인의 문항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가령,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요인에는 주로 공적인 상황에서의 실수를 은폐하려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 위주로 묶였으며 '내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은 오히려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요인으로 묶임으로 제외되었다.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요인에도 대체로 자기 문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려 하지 않는 특성 위주로 묶였으며,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를 인정해도 괜찮다'와 같은 문항들은 오히려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요인으로 간주됨을 발견하였다. 한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일이다'와 같은 문항들은 모두 '불완전함 은폐-행동적'요인과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요인에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요약해보면, 서양의 문화를 토대로 개발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하위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의 문항 가운데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한 문항들이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나 결함을 감추고자 하는 특성에 있어서도 원척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결함을 보거나 알지 않기를 바라는

www.kci.go.kr

문항들이 모두 제외되고 오히려 실수가 드러날 상황에 대해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문항이나 자신의 실수나 문제들을 함구하는 내용 중심의 문항들로 요인분석 되었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불완전함을 가리는 데에 있어서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행동 상의 실수나 결함을 최소화함으로서 공적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실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해 염려 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과 같은 동양적 문화에서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거나 혹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를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자신의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측면일 수 있는 것이다. 동양인들이 자신을 불완전함을 숨기고자 한다는 연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고자 전문적인 도움요청을 꺼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미국인들보다 미국 내의 소수 동양인들(Asian American)에게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ogert, 1998; Zhang, Snowden, & Sue, 1998). 이 같은 결과는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자신의 결함을 감추고 싶어 하는 측면이 더 강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한편, 완벽주의 척도의 신뢰도가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지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영어로 이루어진 완벽주의의 원척도가 사용되었을 때 척도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과 같은 동양권에서 이 척도가 사용될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Ha, Lee, & Puig, 2010). 물론 이는 번안상의 오류 가능성도 있겠지만 완벽주의 척도 문항이 문화에 따라 적합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 또한 존재함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 특성에 적합한 문항들을 한국의 토대 하에서 개발하고 원척도의 구성 개념에 적합하게 다시 분류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자신의 완벽함을 드러내고 실수나 불완전함을 숨기려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특성은 한국의 문화와 서양문화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자기(self)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듯이(Kitayama & Markus, 2000; Okazaki, 2000), 자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는 것에도 분명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각 차원별 심리적 적응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함으로써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속성을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살펴본 제한점을 중심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원척도 문항과 더불어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한 문항보다는 공적인 상황에서의 체면이나 은폐와 관련된 문항들, 자신의 실수를 타인이 보지 않길 바라는 소극적인 은폐부터 본인이 적극적으로 감추고 싶어 하는 내용을 포함한 문항들, 본인의 불완전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함구하는 내용 등을 보완하여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개발 후 이 척도에 대한 남녀차이와 대학생-성인 간 차이 또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완벽주의 척도의 신뢰도가 어떤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메타분석을 이용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Ha, Lee, & Puig, 2010) 완벽주의 척도(F-MPS)의 신뢰도는 이 척도를 실시한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 완벽주의 척도의 신뢰도 및 하위변인의 신뢰도가 부분적으로 높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에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변인 별로 부분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완벽주의적

www.kci.go.kr

자기제시 자체가 완벽주의라는 개념을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은 물론 연령별, 성별 차이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문항을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 검토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요인분석한 하위 변인들과 관련 척도들 간의 관련성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요인분석한 하위변인들과 관련 척도간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서 교차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 개발

방 법

연구절차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구성된 43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에 포함될 최종 문항을 선별하여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하위변인들 간 관련성 및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았고, 다른 완벽주의척도(H-MPS) 및 우울감, 자기검색,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상관을 통해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A, B 대학에서 교양강좌를 수강중인 학부생 230명(남: 75명, 평균연령: 21세(SD=2.49); 여: 155명, 평균연령: 22세(SD=3.89))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 9월에 예비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와 우울감, 자기검색, 자기구실만들기 척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생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으며 전공 역시 다양하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하정희, 2010a),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최보라, 2007), 자기은폐 척도(Larson & Chastain, 1990, 장진이 재인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이에 덧붙여서 3명의 상담심리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문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총 51문항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특히 대학생과 환자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여러 척도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자기은폐 척도는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Hewitt et al, 2003). 또한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문항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자신의 좋은 점을 드러내려 하고 불완전함을 숨기려한다는 점(박미란, 이지연, 2008)에서 이들 척도들은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2명의 박사과정생과 본 연구자가 문항을 검토해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Hewitt 등의 원척도의 하위 개념에 충실한 문항들로 구

www.kci.go.kr

성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들 문항 가운데에서 10문항을 줄여 총 41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질문지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15문항),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DP)'(15문항),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DC)(11문항)으로 총 41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척도는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는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한기연(1993), 홍혜영(1995) 등이 이 질문지를 번역하고 김연수(1998)가 이를 재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귀인하는 방향에 따라서 완벽주의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분류되며, 이들 각각의 하위차원들은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문항은 4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ewitt과 Flett(1991) 연구에서 척도의 세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2, .86, 87이었고, 본 논문에서의 이들 세 가지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8, .80, .87로 나타났다.

우울감 척도(Center for Epidem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최초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개발한 Hewitt 등(2003)의 연구에서 타당화 검증을 위해 우울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바 있으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감은 개념적으로도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역시 원 척도와 마찬가지로 우울감과 관련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우울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긍정적인 문항이 4개, 부정적인 문항이 16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더욱 더 우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와 이민규(1992)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감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자기검색 척도(Self-Monitoring Scale)

자기검색이란 자신의 표현행동의 사회적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상황적 단서에 자신을 맞춰 자기관찰, 통제, 관리를 하려는 성향을 말한다(이주일, 198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개발한 Hewitt 등(2003)의 연구에서 타당화 검증을 통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검색과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자기검색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이나 대인관계의 적절성에 관심을 가지며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자기검색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가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자기검색 척도와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자기검색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nyder와 Gangestad(1986)가 개발한 자기검색척도(ASMS)를 이주일(198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높은 자기검색의 특성(예,

www.kci.go.kr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행동을 꾸미는 것 같다)과 낮은 자기검색(사교적 모임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기검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진희(2008)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0으로 나타났다.

자기구실 만들기(Self Handicapping Scale)

자기구실 만들기는 성공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혹은 장애가 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설명한다(Rhodewalt & Davidson, 198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원척도를 개발한 Hewitt 등(2003)의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관련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자기구실 만들기라고 설명되는 행동들 자체가 자기 보호적인 혹은 자기증진적인 동기가 미리 상정되는 경우이므로(김지경, 200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개념적으로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척도는 Jones와 Rhodewalt(1982)가 만든 척도를 류정희(200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요인, 노력포기와 변명 경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총점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문항은 6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류정희(2006)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76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먼저 43개의 예비문항에 대해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이 문항들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적 합치도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이 이루어졌으며 T-test를 통해 남녀차이검증 및 집단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감, 자기검색,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상관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문항분석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측정하기 위한 예비척도는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에 포함된 문항은 총 43개이다. 우선,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고 평균이 극단 값을 갖거나 표준편차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문항을 검토하여 평균이 극단 값을 갖는 문항 1개와 표준편차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문항 1개를 제외하였다. 문항의 평균값은 2.98~5.38, 표준편차는 1.01~1.61 값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각 요인별로 문항 간 상관과 문항 총점 간 상관을 내어 내적 합치도를 검토하였다. 문항 총점 간의 상관은 .54~.75로 나타났으며, 문항 분석 결과 총 41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척도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고자 총 41개의

www.kci.go.kr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 중에서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모두 11개로 나타났다. 스크리 검사 결과를 보면, 요인수가 4개를 넘어가면서 요인간 고유치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Hewitt 등(2003)의 제안대로 원척도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요인수를 3개로 다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축요인분석 후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구조계수 행렬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즉, 요인의 계수가 4.0 이상인 동시에 표적 요인과 비표적 요인의 계수가 .10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들, 2개 이상의 요인에 혼재되어 있는 문항을

표 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요인구조 및 내적 일치도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19.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	**.751**	.274	.196
2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727**	.214	.238
16.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통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703**	.296	.244
3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완벽하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696**	.088	.318
41. 내가 나의 일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완벽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691**	.122	.285
31.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잘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688**	.183	.174
40. 나는 언제나 내 행동에 대해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667**	.093	.278
2. 나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572**	.284	.168
20.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051	**-.702**	.173
14. 나는 공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278	**.668**	.174
39. 나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지적받는 것이 무척 싫다.	.261	**.617**	.111
11.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신경을 쓴다.	.185	**.591**	.070
8.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꺼리가 된다면 끔찍할 것이다.	.256	**.506**	.106
6. 나는 내 문제를 늘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117	.203	**.807**
29. 나는 내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는다.	.238	.230	**.620**
21. 내 단점을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283	.296	**.607**
9. 다른 사람들에게 내 문제들을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213	.042	**.521**
23. 내가 맡은 일이 완벽하게 성공할 때까지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다.	.204	.046	**.488**
4.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000	.033	**.445**
eigenvalue	4.893	1.812	1.482
설명변량(%)	25.750	9.537	7.801
Cronbach 알파(전체척도= .85)	.88	.75	.75

www.kci.go.kr

제거한 문항들만 포함시켰다. 그 결과 11개 문항들이 제거되어 3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나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문항, 예를 들면,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요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단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창피한 것이다'와 같은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요인이 혼재된 경우에 이를 제거하였다. 또한 각 차원의 문항들 간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 예를 들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요인에서 '내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결과가 완벽하면 문제없다'와 같은 문항은 이와 유사한 다른 문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인 부하량이 낮은 이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문항은 19문항이었다. 따라서 3개 요인으로 분석 후 요인들 간의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3개의 요인은 변량의 43.09%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요인 각각의 고유치는 4.89, 1.81, 1.48이었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3요인은 Hewitt 등(2003)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의 하위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8문항),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DP)'(5문항),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DC)'(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요인 1(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은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로서 이론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이라고 지정했던 15개의 문항 중 8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의 내용의 특성은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내용 및 자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자신을 완벽하게 봐주길 바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2(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DP))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결함이나 실수 따위들이 공적인 상황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요인들은 처음 지정했던 15개 문항 가운데 10문항이 제거되고 5문항들만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3(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DC))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실수 및 결함들을 남들에게 비밀로 하는 내용이 주가 되며, 처음 지정했던 11문항 가운데 5문항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6문항이 포함되었다. 하위척도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DP)',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DC)' 요인 별로 각각 .88, .75, .75로 나타났다.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하위척도간 상관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 하위 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차원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과의 상관이 보통정도의 크기로 나타났다.

남 녀 집단간 평균 비교

하위척도별로 남녀 집단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통해 볼 때,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척도들 가운데에서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차원에서 남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에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점수가 더 크게 나타났

www.kci.go.kr

표 2. 하위척도 간 상관분석

	1	2
1.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2. 불완전함 은폐노력 - 행동적	.33***	
3. 불완전함 은폐노력 - 언어적	.30***	.21**

**p < .01, *** p < .001

표 3. 하위척도별 평균(표준편차)과 남녀 차이 검증

하위척도	평균(표준편차)		t
	남자(n=75)	여자(n=155)	
1.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33.39(7.95)	33.06(7.56)	.30
2. 불완전함 은폐노력 - 행동적	24.89(4.92)	26.15(4.19)	-2.01*
3. 불완전함 은폐노력 - 언어적	24.13(5.85)	23.19(5.40)	1.20
총점	82.41(11.75)	82.41(13.48)	.00

*p < .05

음을 의미하며, 다른 하위척도들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표 4를 통해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

표 4.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와 완벽주의 척도, 우울감, 자기검색,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상관계수(r)

변 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 -언어적
완벽주의 척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59***	.20**	.25***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21**	-.02	-.1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25***	.17**	.21**
	총점	.58***	.21**	.13
	우울감	.10	.27***	.14*
	자기검색	.31***	-.04	-.09
	자기구실 만들기	.18**	.25***	-.04

* p < .05, ** p < .01, *** p < .001

www.kci.go.kr

와 완벽주의 척도(H-MPS), 우울감, 자기검색,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PSPS-K의 하위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완벽주의척도의 하위변인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자기검색 및 자기구실 만들기와도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PSPS-K의 하위변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완벽주의 척도 가운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우울감 및 자기구실 만들기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PSPS-K의 하위변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완벽주의의 하위변인 모두와 관련성을 나타내었는데, 이 가운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우울감과 관련성을 나타내었고, 자기검색이나 자기구실 만들기와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2. 교차타당화 연구

방 법

연구절차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하위변인들에 대한 대학생과 성인의 집단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른 완벽주의척도(H-MPS) 및 우울감,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상관을 통해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권에 위치한 A, B 회사에 근무 중인 일반 성인 147명(남: 85명, 여: 60명, 무응답 2명)이 2010년 10월에 참여하였다. 연구 1에서 실시했던 질문지들에서 자기검색 척도만을 제외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A와 B 회사 사원들은 대기업 모계열의 생산직과 사무직 사원들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으며, 남자의 평균연령은 28.67(SD=5.74)이었고, 여자의 평균연령은 23.62(SD=5.39)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연구 1에서 실시했던 질문지들에서 자기검색 척도만을 제외한 질문지를 모두 실시하였다.

분석방법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19개의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AMOS를 통해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x^2/p와 GFI와 TLI, CFI, RMSEA를 지수로 사용하였다.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감,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상관분석이 이루어졌고 대학생과 성인 간 집단차이를 살펴보고자 T-test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판 완벽주의적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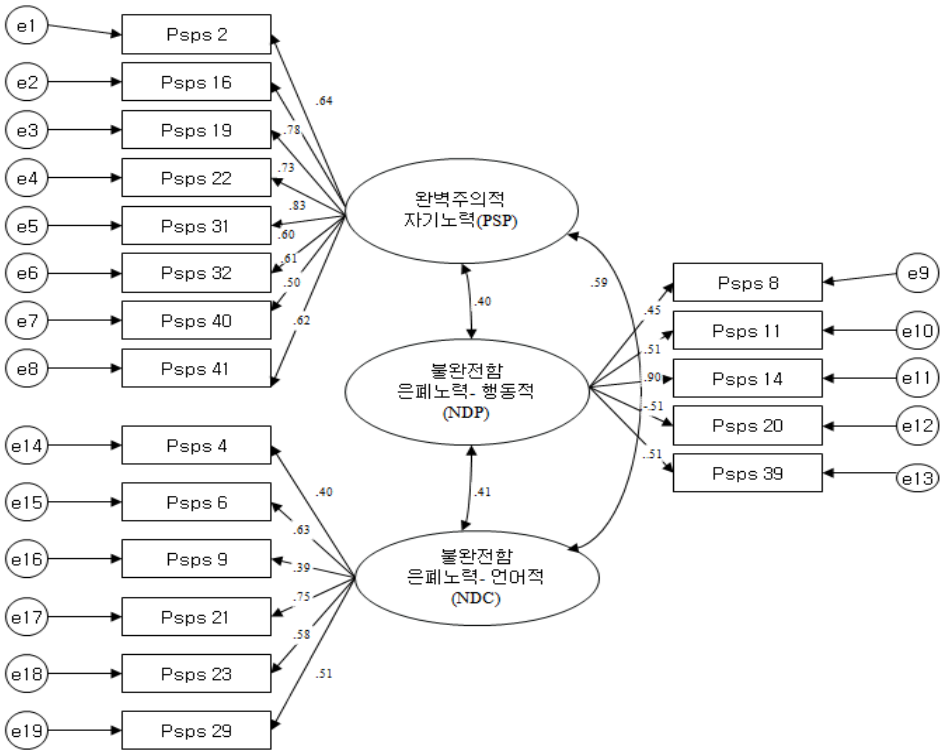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PSPS-K)의 요인구조

자기제시 척도에서 추출된 3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자승 통계치는 225.386(df=138, N=147)(p<.001)로 유의도가 .05보다 작아서 '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있으나 GFI와 TLI, CFI의 값이 .87, .87, .89이며 RMSEA의 값이 .06으로 나타나 비교적 수용할 만한 적합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상관분석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척도(PSPS-K)와 완벽주의 척도(H-MPS), 우울감,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상관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를 볼 때,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변인들과 완벽주의 척도와의 관련성은 앞서 살펴본 대학생 집단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변인들과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과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의 상관 역시 성인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우울감 및 자기구실 만들기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은 우울감 및 자기구실 만들기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을

www.kci.go.kr

표 5. 성인집단의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와 완벽주의 척도, 우울감, 자기구실만들기와의 상관계수(r)

변 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 -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 -언어적
완벽주의 척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49***	.15	.19*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08	.04	-.1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31***	.17*	.22**
	총점	.54***	.17*	.17*
우울감		.09	.31***	.18*
자기구실 만들기		.09	.30***	.14

* $p < .05$, ** $p < .01$, *** $p < .001$

보여주었으나 자기구실만들기와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학생 집단과 성인 집단의 평균 비교

대학생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이 PSPS-K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결과에서 보면 대학생과 일반 집단 간에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대학생 집단보다 성인집단이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차원의 평균점수가 더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나머지 하위요인들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논 의

Hewitt 등(2003)이 개발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PSPS)'가 한국에서 번안되고 타당화되는 과정에서 원척도의 문항과 다소 다르게 요인분석 되거나 요인분석 시에 문항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Hewitt 등이 개발한 척도

표 6. 하위척도별 대학생 집단과 성인 집단의 평균(표준편차) 차이 검증

하위척도	평균(표준편차)		t
	대학생(n=230)	일반(n=147)	
1.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33.17(7.68)	33.14(6.92)	-.04
2. 불완전함 은폐노력 - 행동적	25.74(4.47)	24.87(4.10)	-1.91
3. 불완전함 은폐노력 - 언어적	23.50(5.56)	23.91(4.64)	.81*
총점	96.57(14.39)	96.10(12.75)	-.34

* $p < .05$

www.kci.go.kr

의 개념을 근거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한국문화에 적합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속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적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는 원척도와 유사하게 3요인 모형이 수용할 만 하였고, 요인 중요도 순위 또한 원척도와 일치하였다.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5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하위 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SP)'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88,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NDP)'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75,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NDC)'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75로 나타났다. 이러한 3요인 모형은 이후에 실시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보통 정도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SPS-K)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문항수가 27문항에서 19문항으로 줄어들었다. PSPS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각각 10문항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PSPS-K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8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5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6문항이 포함되어 문항 수는 줄었지만 각 요인의 특성은 모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PSPS-K에서는 각 요인에 따른 문항의 내용에 있어서 PSPS와 다소 달라진 문항 특성을 나타내었다. 물론, PSPS의 하위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본 척도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PSPS에서 상당수의 문항들이 PSPS-K에 포함되지만, 각 하위요인 별로 흡수된 문항수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요인에서는 PSPS의 10개의 문항들 가운데 4개의 문항들이 흡수되었고 다른 4개의 문항은 새로 개발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PSPS에서 흡수된 문항들은 주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들의 문항이며, 새로 개발된 문항들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내용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완벽하게 봐주기 바라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요인은 PSPS의 10개의 문항 가운데 4개의 문항들이 흡수되었고 개발된 다른 1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드러난 요인의 특성은 공적인 상황에서의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PSPS에서 포함된 문항들의 내용 또한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 염려하는 내용들이었으며, 개발된 1개의 문항도 이와 비슷하게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를 지적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요인인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요인은 PSPS의 7개 문항 가운데 3개 문항이 흡수되었고, 새로 개발된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난 요인의 특성은 자기 문제에 대한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PSPS에서 흡수된 문항이나 새로 개발된 문항들 모두 자기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함구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PSPS의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요인에서 외모와 관련된 문항(예, 내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다 등)은 2, 3요인에 모두 포함이 되어 요인에서 제외되었고,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요인에서도 이와 관련된 요인(예, 옷을 멋지게 차려입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이 제외되었다. 한국적 문화에서 볼 때 외모는 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www.kci.go.kr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크게 지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불완전함 은폐노력'의 두 차원에 모두 묶인 것이리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PSPS에서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차원에서 자신의 실수를 말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일이다)들은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요인에도 함께 묶이면서 문항에서 제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PSPS-K는 PSPS에서 제시된 하위요인들의 개념이 중심이 되지만, 한국적 문화에서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불완전함 은폐'에 대한 특성이 각각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PSPS-K의 하위 차원별로 남녀차이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한 은폐노력-행동적' 요인에서 여자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Hewitt 등(2003)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자아의 제시나 이미지나 외양 구축 등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Pliner, Chaiken, & Flett, 1990)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자기제시적 규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Leary, 1996). 또한 자기제시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에게 중요성 측면에서 더욱 더 다양하다는 연구(Elliott, 1982, Besser, Flett, Hewitt, 2010, 재인용)를 통해 볼 때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에 자신의 실수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특성이 더 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PSPS-K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우울감, 자기검색 및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PSPS-K의 하위 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불완전함 은폐 노력-행동적'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변인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는 정적 상관을,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관 분석 결과와 비교해볼 때도 성인집단의 상관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다소 낮긴 하지만 두 집단이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의 표현적 특성을 측정하는 PSPS-K는 완벽해지려는 동기를 반영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척도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완벽주의의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기존의 척도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대학생집단과 성인집단별로 PSPS-K의 평균비교를 해본 결과,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차원에서 성인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성인집단이 직장인 집단이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에 비해 자기문제를 더 드러내기 힘든 환경에 처해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성인집단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자신의 개인적 문제들을 더 많이 은폐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 차원의 점수가 더 높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PSPS-K의 하위요인들은 대학생과 성인집단 모두에서 하위요인들이 우울감, 자기검색, 자기구실 만들기와 각각 다르게 관련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대학생과 성인집단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우울감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자기검색 및 자기구

www.kci.go.kr

실 만들기와 관련됨으로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려 노력하며, 수행에 대하여 노력을 포기하거나 변명하는 등의 구실을 어느 정도 만들어냄을 알 수 있었다.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측면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완벽함을 공적인 상황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타인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유능하며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울감을 느끼지는 않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높은 비현실적 기준 및 엄격한 평가를 부과하게 되므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조절하면서 타인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상호작용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남들로부터 호의적인 평판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예민해지고 대인관계 역시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일처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구실을 만들어내는 탓에 만족스러운 수행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요인과 '불완전함 은폐-언어적' 요인 모두 우울감과 관련되었고,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요인이 자기구실만들기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비판에 예민하여 남들이 반대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불완전한 상황을 과도하게 회피하는 특성이 있다(Horney, 1950). 이들이 실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회피하고 숨기는 이유는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Weisinger & Lobsenz, 1981). 이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 완벽주의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기준이 자신에게 과중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이다(하정희, 2010, 재인용). 아울러, 본 연구에서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요인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난 특성이 바로 공적인 상황에서의 실수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자기구실 만들기는 '불완전함 은폐-행동적' 차원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기구실 만들기는 자신의 실패를 능력부족으로 설명하지 않고 노력부족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신에 대한 개념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준다(Rhodewalt & Davidson, 1986). 그러므로 자신의 불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구실을 만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개인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완벽하다는 것이 어느 특정한 극소수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성취적,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한국의 문화를 토대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특성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PSPS-K는 외양에 대한 완벽함보다는 자신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노력하는 문항들, 공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드러나는 문항, 본인의 결함에 대한 함구 및 본인의 높은 완벽주의적 기준으로 인한 은폐 중심적인 문항들이 원척도에서 추가되어 개발되었다. 공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결함을 감추고 싶어 하며 잘 다듬어진 자신의 모습만을 보이고 싶어 하는 등 체면과 예절이 중시되는 한국의 문화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문항들을 보완하여 PSPS-K를 개발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성적 완벽주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완벽주의의 적응적, 부적응적 측면들을 보다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당

www.kci.go.kr

부분 성취중심적인 특성으로 이해되던 완벽주의적 개념을 확장하여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을 과시하려 하거나 공적으로 실수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이를 은폐하며 자기문제를 비밀로 하는 등의 특성 또한 기본적으로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됨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PSPS-K를 통해 이들에 기저하는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이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 치료방법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이 척도가 다양한 대상에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환자집단 등의 특수집단까지도 포함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 및 남녀별, 집단별 차이 등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하위변인 별로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도 매우 높은 상관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의 타당도 검증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삼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며, 추후 다양한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이 척도의 타당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와 관련되어 성별차이에 대한 설명은 실제 연구를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이론을 토대로 한 것들이 많았으며, 본 연구 결과만을 토대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남녀차이를 확증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성별차이를 밝혀나간다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특성들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수진 (2008).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신체 불만족이 섭식장애증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김지경 (2008). 자기구실 만들기: 지능에 대한 신념 및 목표성향, 노력/결과 중심의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99-114.

류정희 (2006). 시험불안과 학업적 유능감의 관계: 동기적 성취전략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류정희, 신현숙 (2006) 시험불안, 동기적 성취 전략 및 학업적 유능감의 관계모형 검증 시험불안, 동기적 성취 전략 및 학업적 유능감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7(1), 147-164.

박미란, 이지연 (2008). 자기은폐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9(4), 1547-1565.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의식 척도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진희 (2008). 개인-집단간 부합이 개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장진이 (2000). 자기은폐와 정서표현성향, 지각된 사회적지지 그리고 도움추구 태도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전겸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개발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최보라 (2007).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타당화.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하정희 (2010a).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www.kci.go.kr

(PSP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221-239.

하정희 (2010b).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265-280.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Bogart, L. M. (1998). The relationship of stereotypes about helpers to help-seeking judgements, preferences, and behaviors, *PSPB, 24,* 1264-1275

Ey, S., Henning, K., & Shaw, D. L. (2000). Attitudes and factors related to seeking mental health treatment among medical and dent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4,* 23-39.

Flett, G. l., Hewitt, P. L., Endler, N. S., & Tassone, C. (1994). Perfectionism and components of state and trait anxiety. *Current Psychology, 13,* 326-350.

Flett, G. L., Madorsky, D., Hewitt, P. L., & Heisel, M. J. (2002). Perfectionism cognitions,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Rational -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0,* 31-45

Frost, R. O., Turcotte, T. A., Heimberg, R. G., Mattia, J. I., Holt, C. S., & Hope, D. A. (1995). Reactions to mistakes among subjects high and low in perfectionistic concern over mistak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07-226.

Ha, J. H., Lee, S. M., & Puig, A. (2010). A reliability generalization study of the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MPS). *Psychological Reports, 107*(1), 95-112.

Hewitt, P. L., Blasberg, J. S., Flett, G. L., Sherry, S. B., Medjuck, J., Caelian, C., & Papsdorf, M. (2007).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Validation of a measur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Hewitt, P. L, & Flett, G. L. (2002). Perfectionism and stress processes in psychopatholo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255-28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witt, P.L., Flett, G.L., & Ediger, E. (1995). Perfectionism trait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eating disorder attitudes,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 317-326.

Hewitt, P. l., &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Hewitt, P. L, Flynn, C. A., Mikhail, S., Sherry, S. B., & Flett, G. l. (2007). *Evaluation of brief psychodynamic/interpersonal group therapy for perfectionism*. Manuscript in preparation.

Hewitt, P. L, Habke, M., Lee-Baggley, D. L., Sherry, S. B., & Flett, G. L. (2008). The impa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erience of a clinical interview. *Psychiatry, 71*(2), 93-122.

Horney, K. (1950). *Neurosis and human growth*. New

www.kci.go.kr

York: Norton.

Humphrey, N (1992) *A History of the Mind.* London: Chatto & Windus.

Jones, E. E., & Rhodewalt, F. (1982). *The Self-Handicapping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Available from F. Rhodewal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Utah).

Kitayama, S., & Markus, H. R. (2000).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realization of sympathy: Cultural patterns of self, social relations, and well-being. In E. Diener & E. M. Suh (Ed),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113-161). Cambridge, MA: MIT press.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39-455.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Okazaki, S. (2000). Asi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differences on affective distress symptoms. Do symptom reports differ across reporting method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5), 603-625.

Rhodewalt, F., & Davidson, J. (1986). Self-handicapping and subsequent performance: Role of outcome valence and attributional certainty.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7*, 307-323.

Synder, M., & Gangestad, S. (1986). On the nature of self-monitoring: Matters of assessment, matters of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125-139.

Weisinger, H., & Lobsenz, N. (1981). *Nobody's perfect.* New York: Warner Books.

Zhang, A. Y., Snowden, L. R., & Sue, S. (1998). Differences between Asian and white Americans' help seeking and utilization pattern in the Losangeles are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6,* 317-326.

원고 접수일 : 2011. 6.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1. 8. 5.
게재 결정일 : 2011. 8. 9.

www.kci.go.kr

상 담 학 연 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1, Vol. 12, No. 4, 1211-1230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Ha, Jung-Hee

Hanyang Cyber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PSPS-K)' based on the concept of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PSPS'. Study 1, the preliminary questions of PSPS-K were developed and administered to 230 undergraduate students for factor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SPS-K was composed of three factors('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C'), and the PSPS-K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ther perfectionism scale. According to the T-test, the women group was higher than the man group in the subscale of PSPS-K,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P'. As well, the three factors of PSPS-K were positively correlated depression scale, self-monitoring scale, self-handicapping scale differently. In study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PSPS-K showed that 3 factor model was supported satisfactory, and the adult group was higher than undergraduate students group in the subscale of PSPS-K, 'Nondisplay of Imperfection: NDC'.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 Factor analysi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www.kci.go.kr